

김형익 목사의 율법과 복음

5강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갈 5:13)

1. 신자의 영적 싸움은 두 세력의 대등한 싸움이 아니다.

A. 성령 안에 있는 신자 자신과 몸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로마서 6:12에서 '너의 사욕'이라고 하지 않고 '몸의 사욕'이라고 표현했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들은 다 몸의 욕구들이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본능적 욕구들은 다 선한 것들로 남아있었겠지만, 죄인에게 이 욕구들은 본래의 조화를 다 잃어버리고 '몸의 사욕', 정욕과 탐욕이 되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이것은 몸의 욕구 혹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향이고 신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욕구가 된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된다. 이런 욕구를 모른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싸움

이 싸움은 우리의 구원을 건 싸움이 아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신자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기 위한 싸움이다.

2. 신분(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져온다.

국가 대표가 되었으니 이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니 놀고먹자? 천만에! 그는 도리어 자기 생활에 얼마이는 일이 없이 훈련에 매진할 것이다(딤후 2:3).

3. 신자는 순종의 증으로 의에 이른다(롬 6:16).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의 윤리, 새 사람의 삶이 요구된다. 이것은 새 사람처럼 살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신자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인 의의 삶을 살게 된다. 순종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율법

복음이 오기 전에 주어진 율법과는 전혀 다르다. 그 차이는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다 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행하고 살아라'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이다. 신약 성도들을 향한 명령은 언제나 직설법(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명령법(율법)이다. 의의 생활을 하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싸울 힘이 생긴 것이다.

5. 신자의 삶은 저절로 살아지는 것이 아니다.

피흘리도록 싸워야 하고(히 12:4),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삶이다(엡 6:10~17).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은 힘쓰고 애써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다.

6. 신자는 사랑 때문에 종이 된다.

신자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이다. 그는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 때문에 말씀을 읽고 사

랑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 때문에 봉사하며 사랑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종노릇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자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안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덜 받는 법칙에서 풀려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고 받고 있는 자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헤세드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나 하나의 하고 안 하는 행위에 따라서 변덕스럽게 바뀌지 않는다. 이 복음의 보장 안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평생 순종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한다. 이것이 신자다.

